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4호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승리지상주의에 쓰러진 러거를 추모하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

문체위, 홍명보-안세영 논란에 체육계 질타..."여전히 19세기"

설승은 연합뉴스 기자

올림픽 전부터 있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도 수면 위로...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 체육단체 논란으로 튀다

차형석 시사IN 기자

[한정선의 작은사람 프리즘]

순수하고 공정한 스포츠에 열광하는 우리의 오염도를 고민하며

한정선 헤드라인제주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제7차 심의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전지훈연비 횡령한 운동부 지도자 수사 의뢰

정희돈 SBS뉴스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제7차 심의위원회

스포츠 선진도(先進道), '풀뿌리 체육'으로 활짝 피어난다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승리지상주의에 쓰러진 러거를 추모하며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은 대학의 교육은 물론 스포츠 경쟁에 있어서 수많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전통이었다. 하지만 신군부 시절의 3군 체육대회를 연상케 하는 과열 경쟁은 최고 지성들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고연전 - 연고전을 승리지상주의에 물든 천박한 싸움으로 내몰고 있다.

도대체 그 정기전의 어떤 것이 고통을 호소하는 건장한 청년의 외침을 '엄살'로 치부하고, 삶을 갈구하는 경련과 흥미한 정신을 나약한 '포기'로 규정한다 말인가, 교육계와 체육계 모두는 이런 관행에 대해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가장 격렬한 경쟁을 대비하는 체력과 기술, 그리고 전략은 럭비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숭고한 몸부림이지만, 경기 후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노사이드(No-side) 또한 럭비 경기의 본질이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정기전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애쓰다 쓰러져간 건장한 러거의 죽음 앞에서 도대체 노사이드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기 위한 인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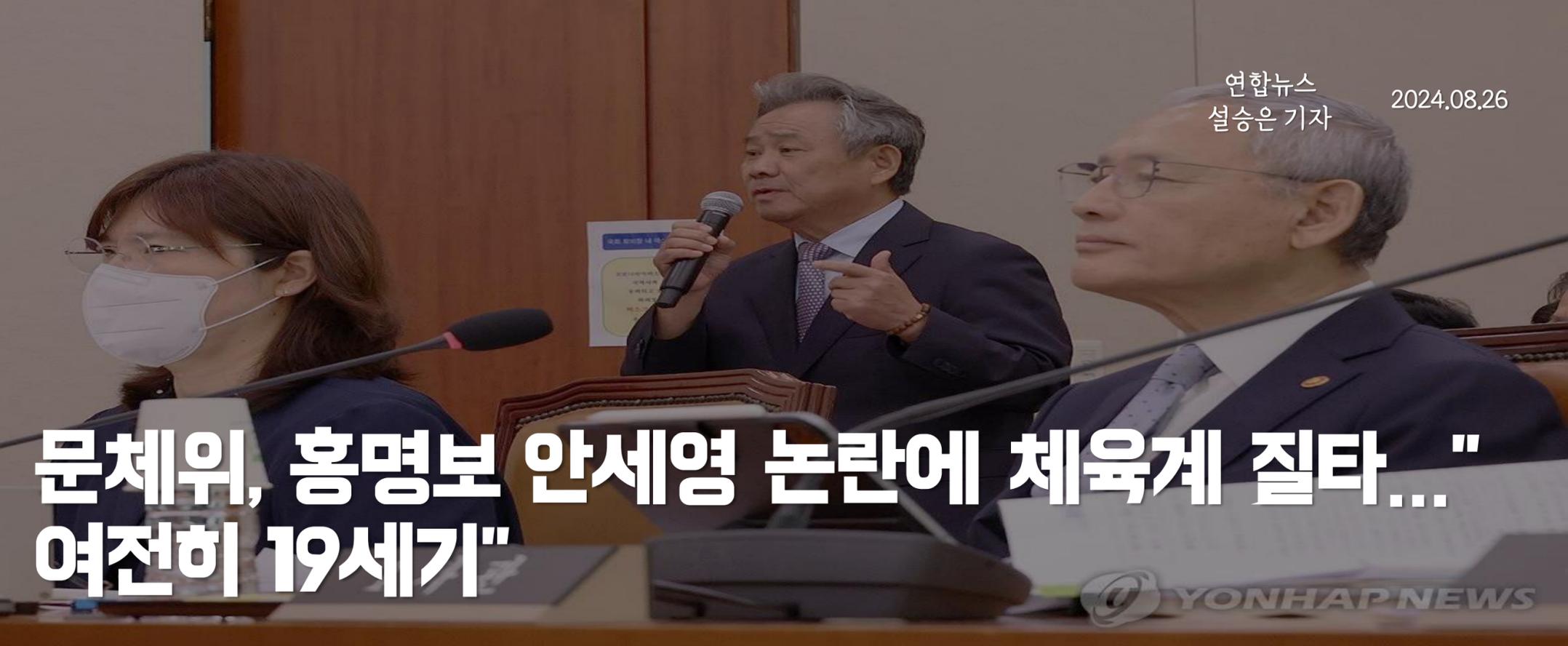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교육과 체육 당국,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에 촉구한다.

하나, 비인권적 훈련 환경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우호적 경쟁을 저해하는 정기전의 과열된 경쟁문화를 즉각 개선하라.

2024.08.27

체육시민연대



문체위, 홍명보 안세영 논란에 체육계 질타..." 여전히 19세기"

여야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을 놓고 체육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올림픽을 보며 체육 행정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 많다. 안세영 선수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도 "성공적인 올림픽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의 체육계가 여전히 19세기적 관행에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해병대 병영 체험을 실시한 것을 두고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게 놀랍다"(민주당 민형배), "이해되지 않는다"(신동욱) 등의 비판이 나왔다. 여야는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부른 대한축구협회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축구협회가 책임 있는 조치나 설명을 안 해 국민 분노가 끊고 있다"며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는 조치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했다"며 "문체부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고 문제를 덮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130억여원의 기업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체육회가 광고·홍보 '스폰'(후원)을 많이 받는 것이 좋으나, 나쁘냐"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좋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광고·홍보 스폰을 받는 리더가 능력자"라며 "성남FC 광고·홍보 스폰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대표 이야기"라고 언급한 뒤 "현 정부가 성남 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종목별 체육단체 기부금과 성남FC 문제를 비교하는 것은 얼토당토않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경우 후원금을 낸 기업들과 도시 계획 용도 변경과 같은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순수한 의도로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를 후원하는 분들과 비교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구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문체위 청원 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문체위는 내달 24일 홍 감독 선임, 안세영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및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안세영이 소아올린 공, 체육단체 논란으로 튀다

파리 올림픽이 끝났지만, 체육계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발단이 된 건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이었다. 안 선수는 메달 수상 직후 협회의 부상 관리 등을 비판했다.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올림픽 기간 중에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신 회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최근 그 병원에 대한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대거 들어온 사실이 알려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올림픽 전에 A대표팀 감독 선임 건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비난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겹치자, 체육단체 전반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에 쏟아졌다. 세 가지 포인트로 체육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 체육단체들이 뭐기에?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에 따라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2 체육백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한 해 예산은 4630억원이다(2022년 기준). 94.4%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자체 수입이 5.2%선이다. 2009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과 관련해 IOC와 대외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되었다.

과거에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었는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등을 이유로 2016년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체육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되었다.

2022년 기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는 62개, 준회원 종목 단체는 9개, 인정 단체는 11개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종목 단체들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대한가라테연맹이나 대한무에타이협회 같은 단체가 준회원이나 인정 단체다.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라도 각 종목 단체의 예산과 재정자립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예산이 많은 단체는 대한축구협회다. 1255억원(재정자립도 74.26%)으로 다른 체육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다음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 151억여 원 수준이다(재정자립도 45%).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11개 종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26억원(대한역도연맹)에서부터 151억원(대한배드민턴협회)까지다. 재정자립도는 21.65%(대한복싱협회)에서 68.28%(대한양궁협회) 수준에 걸쳐 있다. 협회 임원은 대개 무보수·명예직이다.

사실 '회장사(社)'라는 단어는 옛말이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협회를 맡게 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기부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1세대 총수들이 물러나면서 체육단체장을 맡은 기업은 많지 않다. 양궁(현대자동차), 펜싱(SK) 정도가 눈에 띈다. 체육단체 회장을 맡은 바 있는 한 대기업의 임원은 "4년에 한 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다. 또 체육단체 내 분쟁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런 갈등을 보면 '굳이 회장을 왜 맡나' 싶어진다. 더 이상 회장을 맡을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 저변이 얇아 스포츠 생태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기업의 지원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모델이 과연 '모범'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다음 장 계속

■ 개인 스폰서는 어디까지?

올림픽 이후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 계약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인 후원 계약은 한 개로 제한된다. 안세영 선수는 신발의 불편함을 들어 다른 브랜드 신발을 신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전용배 교수(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는 '배드민턴이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끼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에서는 개인 스폰서 계약이 쉽지 않아 이번 논란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거다. 배드민턴은 아마추어 종목이면서도 동호인이 많아 개인 스폰서 계약 가능성이 높다.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 계약 확대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협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인 후원 제약을 없애면 특정 선수에게 후원이 쏠릴 것이고, 대표팀 스폰서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회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대표팀 선수와 주니어 선수를 지원해온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선수와 협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 '유인촌 vs 이기흥' 갈등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 전부터 갈등해왔다. 예컨대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을 해병대에 입소시키는 '원팀 코리아' 캠프를 강행했다.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자 "해병대 훈련 등을 통해 '원팀 코리아' 문화가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유인촌 장관은 '해병대 입소 훈련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7월에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장 연임을 제한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유인촌 장관은 이에 대해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반대했다(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8월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묘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7개 종목 선수단 50여 명이 귀국했다. 유인촌 장관 등이 참석하는 해단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귀국 직후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피로를 이유로 들어 공항 안의 한 홀에서 예정되었던 해단식을 취소하고 입국장 앞에서 해산했다.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다른 부처의 장관과 산하기관장 사이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대전의 사업가 출신으로 자산이 많다. 신도회장을 맡는 등 불교계 인맥도 두텁다. 2016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이 미는 후보와 겨뤄 재선했을 정도로 체육계 장악력이 크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추천식으로 구성되는데, 내년 1월에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유인촌 장관은 8월12일 "(올림픽이 끝난) 지금이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할 적기"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통해 산하 기구 및 종목 단체에 예산을 교부해왔는데,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순수하고 공정한 스포츠에 열광하는 우리의 오염도를 고민하며

헤드라인제주
한정선 기자

2024.08.26



인생의 아름다운 찰나 자체를 깨달으며 온전히 만끽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어느 해보다 무덥고 찌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이번 팔월은,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울고 웃었다. 뜨거운 햇볕은 상관없다는 듯, 거의 평생을 걸쳐 자신을 걸고 다져온 선수들이, 매 순간이 인생의 절정인 듯 경기를 펼쳐 나갔다.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 역시, 생애 자주 없을 그 절정의 장면에 매료되며 감동하였다. 적어도 페어플레이 정신이 생생한 삶의 장면은,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로 인해 삶 전체를 털어 빈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순수한 열정에 마음이 쏟아지곤 하는 듯 보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오프닝 행사부터 다양한 실험적 장면과 연출, 어이없는 실수들이 연발되는 속에서 누군가는 지나친 PC가 공연을 망쳤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무해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양한 밈이 매일 쏟아져 나오면서 툭툭대는 사람도 킬킬대는 사람도 상관없이, 이번 올림픽이 양성해 내는 재미를 즐기는 듯 보였다. 물론 와중에 나처럼 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모든 사람이 복적이며 나누는 올림픽 이야기는 대체로 흥겨워 보였다, 적어도 성별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언제부턴가 유독 여성 선수의 경우에만 주목되는 이 염색체 논의는 올림픽의 고정 뉴스가 되는 실정이다. 남성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선수거나 기량이 뛰어나다 싶은 선수의 DNA를 추적해 XY 염색체가 뜨면 목소리 높여 남성이 속이고 여성 경기에 난입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메달을 훔쳐냈다는 식의 보도가 줄을 지었다. 이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복싱협회(IBA) 입장과 달리 여성 정체성을 지닌 선수의 참여를 인정했다. 해서, 마치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는 식의 자극적이고 과열된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초남성’이론이 있다. Y염색체가 남성 성별을 결정한다고 알려진 이후 이를 하나 더 가진 경우 남성적 특징이 집중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이다. 영국의 세포유전학자 퍼트리샤 제이컵스는 폭력적 정신질환 입원 환자의 3.5%가 XYY염색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네이처>에 비정상적인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기나긴 성소수자 혐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연구에 따르면 XYY염색체를 가진 남성 환자의 공격성이 차이가 없으며 97%가 범죄 이력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의 성별, 생식과 관련된 유전자가 오히려 여성 염색체로 알려진 X에 모여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인간은 성염색체라 알려진 것이 어떻게 드러나도 남성이 아닐 수도, 남성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성염색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조: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임소연, , 한겨레 2020. 09. 08. 기사)

사람의 몸은 이처럼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로만 나뉘지지 않는다. 인터섹스도 있고 성호르몬 시술이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성별을 바꿔나가기도 한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설명하기에는 거칠게 양성으로 구별 지어 구획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섬세하고 정확한 과학적 근거로 논의 되어야 한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염색체 검사만으로는 남녀 구별이 불가하기에 외모로 남녀를 판단하는 사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커서 신뢰할 수 없는 단체의 명예훼손 캠페인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알제리 복서는 국가 정책상 성전환 시술도 수술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트랜스젠더도 아니다. 트랜스젠더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수많은 의학적 시술로 인해 남성과 유사한 정도의 파워를 갖기도 어렵다. 그는 고안드로겐증을 앓아 XY 염색체가 혈액 내에 존재할 뿐이다. 여성의 신체로 태어나 여성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선수 생활 동안 다른 여성 선수에게 9번의 KO패도 당했다. 세상은 왜 그간 그가 무참히 당한 9번의 완패는 기억하지 않을까.

며칠 전에는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전 경기가 토너먼트 형식이라 단 한 번의 실패에도 결승에 이를 수 없는 승부의 세계, 일본의 국민 스포츠라 칭해지며 전국 4,000개 고등학교 야구부의 경기라는 점에서, 뜨거운 청춘의 꿈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고시엔’ 경기이다. 말 그대로 고시엔은 성지에 가깝다, 오죽하면 경기 후 승패 관계 없이 고시엔의 흙을 수집해 가겠는가. 그곳에 전체 학생 160, 선수 61명의, 야구 시합 연습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운동장을 가진, 한국계 국제고등학교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외국계 학교가 고시엔 우승도 처음이다. 결승전 연장 10회 이사만루 투아웃의 상황에서 승리를 끌어내고 교가가 한국어로 울려 퍼졌을 때 눈물 흘렸다는 사람들의 글이 SNS에 넘쳐났다. 일제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한국인의 울분과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감성도 한몫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의 최선을 다했을 구단 모두의 열정에 감동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 감동의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선수 중 3명만이 한국 국적이고 나머지는 일본 국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여러 소셜미디어 및 뉴스를 오가며 관찰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국계라 하더라도 일본 국적 취득이 용이하거나 유리하다 판단했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궁금한 것은 그래서, ‘알고 보니 일본인 선수’라는 이 사실이 감동을 삭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치 9전 10기의 여성 권투선수가 알고 보니 XY 염색체도 가졌다더라 해서 인권을 짓밟고 모욕하던 것과 비교해서 말이다. 한민족이 아니어서 성소수자라서 혹시 감동이 흔들리는가. ‘순수’하고 ‘공정’한 ‘아마추어 정신’의 산물인 고교 야구와 올림픽에서 순수하지도 공정하지 못한 이들은 누구인지 반성해 볼 일이다.

자료 출처: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173>



스포츠윤리센터
KOREA SPORT ETHICS CENTER

스포츠윤리센터, 전지훈련비 횡령한 운동부 지도자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지훈련비를 횡령한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 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B 씨가 전지 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하고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 씨가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지도자들이 참가 숙박비를 횡령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훈련 환경 훼손에 따른 인권침해도 유발한 것은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6월 30일 현재 신고 접수한 사건 현황을 보면, 체육계 비리가 56.5%, 인권침해가 43.5%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 선진도(先進道), '풀뿌리 체육'으로 활짝 피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선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운동부 중심 스포츠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스포츠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등록 스포츠클럽을 현재 39개에서 1,700개로, 지정 스포츠클럽을 17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에 의한 스포츠 선진화와 도민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라는 비전 아래, △스포츠클럽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스포츠클럽 진흥 인프라 조성 △합목적적 동행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클럽 문화확산 등 4개 목표 아래 10개 추진 과제를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스포츠클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스포츠클럽을 대폭 확대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스포츠클럽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도내 254개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 것.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진흥 조례를 제·개정하고, 도 체육회와 시군 체육회에 스포츠클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 체계를 정립기로 했다.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클럽 자체 시설 확보를 위한 용자 지원도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클럽이 단순히 운동만 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밑그림을 그렸다.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스포츠 꿈나무를 키우고,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동기 부여와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또,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 복지 사업, 지역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 회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및 인권을 존중하는 스포츠클럽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스포츠클럽이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사회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을 풀뿌리 체육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인권 향상에 안창호 후보 적임자”...스포츠계 환영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53074&code=61221111&cp=nv>

국민체육진흥공단, 최고 스포츠산업 아이템 선정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4082713332211315>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구미서 개최...청소년 스포츠 교류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051700053?input=1195m>

장애학생들의 e스포츠 축제 열린다...‘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https://game.mk.co.kr/news/it/11101353>

신유빈, 스포츠 스타 브랜드 2024년 8월...1위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827085851597646a9e4dd7f_30

홍명보호의 팔레스타인전도 TV로 못보나?...OTT스포츠 시대의 그림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4735&ref=A>

KSPO 스포츠가치센터, 충청남도 와 뉴스포츠 캠프 개최

<https://www.news1.kr/sports/general-sport/5521859>

베이브 루스 '예고 홈런' 유니폼 320억 낙찰...스포츠 경매 사상 최고가 신기록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408261442003&sec_id=510301&pt=nv

해양스포츠 도시 포항 알린다...‘2024 원동컵 국제요트대회’ 참가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26516325?OutUrl=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